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이 순 욱*

차 례

1. 들머리
2. 한국전쟁기 학생동인지 문단의 형성 기반
3. 『瑞枝』, 학생문학동인회와 습작문단시대의 개막
4. 『處女地』, 지역적 연대와 필진의 확대
5. 『新作品』, 회람지에서 문예지로의 도약
6. 『詩潮』, 대학문단의 형성과 개화
7. 마무리

1. 들머리

한국전쟁기 부산은 근대문학사에서 문단 재편과 문학사회의 지역 재편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임시수도 부산은 피난으로 인한 인적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매체 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부산·경남에서 발행된 매체는 신문이 24종, 통신이 9종, 잡지가 33종을 훨씬 웃돌았다.¹⁾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매체까지 더하면, 서울 중심의 출판물 생산과 유통이 일시에 피난지 부산으

* 부산대학교 강사

1)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상, 『動亂期(1950.6.26~1953.8.15) 부산경남 지방의 신문잡지 출판』, 『전망』 제2집, 시로, 266~284쪽을 참고할 것.

로 이동한 셈이다. 열악한 출판 환경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진주 등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산·경남은 지식 생산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특히 문학잡지와 신문, 단행본 매체의 발간은 지역문학의 성장을 북돋우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매체의 생산과 유통 환경의 변화는 문학 생산과 향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알려진 매체보다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망실된 문학사료의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나 언론사의 후원에 힘입어 기관지 형식으로 발행된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용지난에다 인쇄 환경의 미비로 유인본(油印本) 문학서적의 생산이 두드러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히 청년 문사들의 문학적 열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학생동인지 매체는 절반 이상이 유인본이다. 그런 점에서 매체를 여전히 미발굴 상태로 남아 있는 작품의 발표지 정도로 단순하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특정 매체는 한 작가의 문학적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학사회의 동향과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가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체의 발굴을 통해 문학사회의 주류적 관점을 재구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은 피난문단이 해체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독자적인 문학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아야 했다. 학생동인회의 지속적인 문학 활동은 이러한 독자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피난문단의 일시성과 동인 내부의 문제가 겹쳐 단명하고 말았지만, 학생동인회는 문학제도 안쪽에서 자신의 문학적 입지를 다져 나감으로써 부산 지역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기 학생동인지는 부산 지역문학사에서 문학 후속세대의 성장과 발전, 제도문단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매체라 하겠다.

이 글은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에서 발간된 학생동인지의 현황과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²⁾ 이를 위해 한국전쟁기라는 특

2)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瑞枝』 제1집, 부산: 서지문학청년구락부, 1951.6(유인

수한 시대 상황에서 청년문사들을 문학 장으로 견인할 수 있었던 환경과 형성 기반, 동인회의 결성 과정, 인적 구성, 이념적 지향, 동인들의 진퇴양상, 동인회의 필진 교류와 지역적 연대, 제도문단으로의 진입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동인지 매체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학생동인회가 1950년대 부산 지역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차 부산 지역의 동인지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개별 동인지에 발표된 작품들의 문학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일은 이 작업의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2. 한국전쟁기 학생동인지 문단의 형성 기반

한국전쟁기는 부산과 대구, 목포, 제주를 중심으로 문단의 지역 재편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 가운데 부산과 대구는 서울의 문학계도와 환경, 문학매체, 문인들이 유입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문학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임시수도 부산은 문충 본부가 후방지역 중에서도 문단 재편과 문학인의 유입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부산 지역은 문단재편에 따른 피난문단의 형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문학의 위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동인지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물적 기반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전쟁기 문단재편과 피난문단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전쟁은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재편, 권력구조와 문화의 재편성을 필연

본); 윤재원·유종윤, 『고향』, 부산: 진달래프린트사, 1951.12(유인본); 조덕순·김희동, 『낙동강』, 부산사범 학예부 문예반, 1952.9.10(유인본); 『處女地』 제1집~제2집, 서울: 제일문화사, 1951.12~1952.10.; 『新作品 別冊』 제1집~제6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2.3~1953.9(유인본); 『新作品』 제7집, 부산: 자유문화사, 1954.3.; 『新作品』 제8집, 부산: 삼협문화사, 1954.12.; 『詩潮』 제1호~제6호, 부산: 시조동인회, 1953.4~1953.11(유인본).

적으로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의 진폭이 가장 격심했던 지역이 바로 최후 방지 부산이었다. 1·4 후퇴로부터 비롯된 문단 재편은 부산 피난문단 시대를 열었다.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의 문학사회를 형성했던 문인은 대략 100여 명을 넘어선다. 이 가운데 유입문인이 8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1952년 8월 공포된 문화보호법과 1953년 4월 공포된 문화인등록령에 따라 1954년 9월 문화인 등록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문학인의 수가 105명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부산 피난문단은 한국문단 전체를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수사는 아닐 것이다.³⁾

피난지 부산에서 문총 본부는 지역 언론매체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전시문예강좌'를 개최하였다.⁴⁾ 이 강좌는 초기 비상국민선전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군관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애국심과 승전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가운데 이현구·모운숙·유치환의 강좌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목적문학으로서 전시문학의 역할과 문학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반면, 김동리, 유치진, 광종원, 김용호, 이하운, 서항석, 김송, 조연현, 김말봉, 손소희, 한무숙의 강연은 피난문단의 형성으로 고무된 지역의 문학지망생들이나 지역민들의 문학적 열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⁵⁾ 전시문예강좌 이외에도 시낭독회나 각종 강연회, 무용, 문인극 등을 개최하였다. 이는 문학을 통한 국가이데올로기의 재생

3) 「現存韓國文學人總覽」, 『文化世界』 1권 3호, 부산: 희망사, 1953.9. 203~229쪽.; 「執筆詩人略歷」, 『愛國詩三十三人集』, 강세균 엮음, 부산: 대한군사원호문화사, 1952.3. 134~148쪽.; 「文壇人名單」, 『新潮』 제3호, 부산: 신조사, 150~151쪽에 기록된 문인 주소와 활동 지역을 고려한 결과다.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동남어문학회, 2007.11. 7~11쪽.

4) 모집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강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과 전쟁」(이현구), 「소설의 본질과 방법」(김동리), 「문학과 조국」(모운숙), 「희곡작법」(유치진), 「비평문학론」(광종원), 「현대시 감상과 작법」(김용호), 「문학과 근대사조」(이하운), 「무대예술연구」(서항석), 「한국문학의 현재와 장래」(조연현), 「소설감상」(김송), 「중군작가보고」(유치환), 「작가수업」(김말봉, 손소희, 한무숙), 「文藝講座 文總서 開催」, 『국제신보』, 1951.5.24. 2면.; 「戰時文藝講座 文總에서 開催」, 『부산일보』, 1951.5.23. 2면.

5) 이순옥, 앞의 글, 185~189쪽.

산 못지않게 피난 문인들이 문학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처럼 문총이 주도한 다양한 행사는 부산 지역 문학예술의 지형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청년문사들의 문학적 열망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난문단의 형성과 대규모 출판문화제도의 유입으로 촉발된 매체의 생산과 향유 경험이다. 광복기 서울에 편중된 잡지매체가 발행을 중지하거나 피난지로 옮겨 발행되었는가 하면, 새로운 잡지매체의 출현으로 문학의 생산과 소비가 한층 피난지 부산에 집중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잡지매체의 등장과 문학 후속세대의 발돋움은 1950년대 문학사회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창간된 『週刊文學藝術』, 『新潮』, 『文化世界』, 『道德』, 『사랑의 세계』 등의 잡지는 신문과 더불어 문인들의 결정적인 작품 발표 매체였다. 어린이 대상의 『새벗』(1952.1)과 『어린이 다이제스트』(1952.9), 『과랑새』(1952.9)와 학생잡지 『學園』(1952.11)은 청년문사들에게 결정적인 발표지면을 제공하였으며, 문학 향유 경험의 폭을 한껏 넓혀 놓았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중학교(당시 6년제) 문예반 활동에다 이러한 잡지매체가 열어 놓은 새로운 문학 환경은 청년문사들에게 작품 생산의 가능성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습작문단시대를 열어젖히며 학생문단을 형성하는 데도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특히 『學園』 창간 이후 투고 작품과 학원문학상 당선 작품을 선별하여 1954년 4월호 별책부록으로 발행한 『韓國少年詩集』을 보면, 전체 48편 가운데 경남과 부산, 경북과 대구, 광주와 목포, 제주 지역 학생의 작품이 70%에 이르는 까닭에 피난문단의 형성이 청년문사들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피난문단의 형성과 새로운 잡지 매체의 발간은 학생문사들의 창작 의욕을 부추기면서 본격적인 학생문단시대를 여는 디딤돌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⁶⁾

셋째, 부산·경남 지역 문학사회의 매체 발간 경험과 문학 행사의 영향

6)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79쪽.

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광복기 진주 지역 영남문학회의 활동과 기관지 『嶺文』⁷⁾의 발행, 그리고 1949년부터 시작된 영남예술제가 지역의 문학청년들에게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⁸⁾ “각처에서 모여드는 ‘한다하는’ 글재주꾼들이 글솜씨를 겨루던”⁹⁾ 백일장은 초창기 영남예술제의 중심이었다. 전국의 명망가 문인들이 두루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⁰⁾ 당시 청년문사들의 문학적 열정을 한껏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입상을 계기로 제도문단으로 나아간 부산·경남 지역의 시인들로 이형기, 박재삼, 송영택, 이제하¹¹⁾, 박태문, 신중신, 임수생 등을 꼽을 수 있다.

-
- 7) 1946년 결성된 진주시인협회는 기관지 『등불』을 4호(1948.1)까지 발간했으며, 1948년 진주시인협회를 해체하고 영남문학회를 결성하였다. 1948년 6월 발행된 제5호부터 제호를 『嶺南文學』으로 바꾸어 6집(1948.10)까지 이어갔다. 1949년 7집(1949.4)부터는 다시 『嶺文』으로 개제하여 통권 18집(1960.11)까지 발행하였다.
- 8) 이 시기 영남문학회와 영남예술제를 일군 설창수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박태일의 「한국 근대 지역문학의 발견과 파성 설창수」, 『로컬리티 인문학』 장간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4, 223~258쪽)를 참고할 것.
- 9) 김영정, 「별처럼 흐르는 流燈의 밤」, 『개천예술제사십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주지부·개천예술제40년사편찬위원회 역음, 개천예술재단, 1991, 450쪽.
- 10) 1949년 11월 26일 개최된 제1회 대회의 심사위원은 이경순, 조진대, 박영한, 설창수로, 경남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주지부·개천예술제40년사편찬위원회 역음, 위의 책, 101쪽. 그러나 1951년 11월 2일 열린 제2회 대회부터는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한글시 백일장의 심사위원은 구 상, 오상순, 이경순, 설창수, 조연현, 박용구, 김윤성이었으며, 최계락의 사회로 이경순이 개회 선언, 김동리가 축사, 시제(詩題) 게시는 유지환, 심사 결과 발표는 구 상, 폐식 선언은 김대규가 맡았다. 또한 시내 다방에서 열린 시화전에는 서정주, 설창수, 구 상, 이정호, 김보성, 박목월, 김춘수, 손동인, 최현옥, 김동렬, 조지훈, 김상옥, 이형기, 장 람, 유지환 홍두표, 이경순, 박영한, 최계락이 이름을 올렸으며, 박두진, 김윤성, 박영한, 김동렬은 진주극장에서 시낭독을 하기도 했다. 위의 책, 106~112쪽.
- 11) 이제하는 마산고등학교 2학년이던 1954년 변재식, 송상옥, 유동석 등과 함께 동인지 『體淵帖』(마산고등학교 문예반, 1954.12)을 발간하기도 했다. 서문은 이원섭 시인이 썼으며, 표지는 이제하가 그렸다. 1956년에는 이들과 함께 박현명, 이광석, 추창영, 강위석, 김병충, 조병무, 허유 등 마산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백치(白痴)동인회를 결성하여 1960년 초반까지 문학의 밤, 시낭독회, 시화전을 개최하며 마산 지역문학을 꽃피웠다. 당시에는 동인지를 내지 못했으나, 최근 창립 53년만에 『백치』 장간호(도서출판 경남, 2009.5)를 발간하였다.

당시 진주농림학교에는 이미 고인이 된 시인 이경순 선생과 소설가 조진대 선생, 그리고 요즘은 작품 활동이 왕성한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교편을 잡고 있었지만 나는 그분들을 찾아가지 못했다.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용기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닥치는 대로 시집과 소설을 읽으면서 간간히 시를 써보곤 했다. 그러던 차에 개최된 것이 제1회 영남예술제다. (가운데 줄임) 시상식이 끝나자 진주중학(지금의 진주고교) 제복을 입은 키 큰 학생이 나를 찾아와 손을 내밀었다. 최계락군이었다. 초면이었지만 나는 최군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최군은 전국의 여러 아동잡지에 상당수의 동시를 발표한 기성시인이었고, 또 <문학청년>이라는 동인지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부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던 최군이 먼저 나를 찾아와 인사를 청한 것이다.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최계락군과 박재삼군을 만나게 된 것은 영남예술제가 나에게 안겨준 백일장 장원 이상의 행운이다. (가운데 줄임) 신이 내 운명의 진로를 문학으로 확정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내게 알려준 행사가 영남예술제인 것이다. 그전까지는 학교 안에서 대수로운 존재가 아니었던 나는 영남예술제 이후 갑자기 진주의 전 문화계와 학생사회에 크로즈업되었다. 덕분에 나는 최계락군이 주도하던 <문학청년>의 동인들과도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¹²⁾

1949년 11월 제1회 영남예술제 한글시 백일장에서 장원을 한 이형기의 회고이다. 백일장은 시와 시조를 선택하여 쓰게 했는데, 자유시의 시제는 <晩秋>, 시조는 <촉석루>였다. 이형기가 장원을, 시조를 쓴 삼천포중학교 3학년생인 박재삼이 차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형기는 자신의 “운명의 진로를 문학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영남예술제에서의 수상은 홀로 혹독한 문학 습작기를 거치고 있었던, 한 무명 문학지망생을 지역의 문학사회에 우뚝 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진주농림학교 학생이었던 이형기가 영남예술제를 계기로 이미 『문학청

12) 이형기, 「운명의 진로 밝혀준 날」, 『개천예술제사십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주지부·개천예술제40년사편찬위원회 엮음, 개천예술재단, 1991, 270~272쪽.

년이라는 매체를 발간하고 있었던 최계락과 교분을 쌓으며 1951년 동인지 『二人』¹³⁾을 발간했듯이, 송영택과 천상병의 만남은 동인지 『處女地』(1951.12)를 탄생시켰다. 1951년 12월 송영택과 박재삼은 진주에서 발행된 『群像』 제2집에 동인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형기가 초청문인 자격으로 『群像』 제1집(1951.8)에 대한 짧은 평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지역 문단에서 학생문사로서 문재를 떨쳤으며, 지역을 넘나들며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문학 활동의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 역시 미발굴 상태로 남아 있는 동인지 『塔』 1집¹⁴⁾에서 최계락, 이형기, 송영택, 천상병이 함께 동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영남예술제 백일장이라는 문학제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남예술제는 문학후속세대를 발굴하는 장치이자 청년 문사들을 결집시키는 문학제도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 안쪽 문학 후속세대들의 수평적 결합뿐만 아니라 기성문인들과의 수직적 연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지역문단의 세대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3. 『瑞枝』, 학생문학동인회와 습작문단시대의 개막

『瑞枝』는 1951년 5월 피난수도 부산에서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녀 학생들이 발간한 등사판 부정기 동인지이다. 습자지 두 장을 겹으로 하여 장정한 22쪽 분량의 유인본으로, 판형은 15.5cm*21.5cm이다. 아무런 장식 없이 두터운 종이를 덧대어 겉표지를 만들었으며, 주황색 속표지에 조각

13) 동인지 『二人』 광고, 『嶺文』 제9집, 영남문화회, 1951.11, 88쪽. 『二人』은 아직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동인지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발행일자와 통권호수를 알 수 없다.

14) 동인지 『塔』 제1집 광고, 『嶺文』 제10집, 영남문화회, 1952.11, 122쪽. 탑동인회에는 이들 외에 이원섭, 김구용, 서병일, 방인영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잘 알려진 문인은 아니지만, 서병일과 방인영은 『嶺文』 제10호(1952.11)에 각각 시(『목련』)와 평론(『不安과 錯覺』)을 발표하고 있다.

배와 소라, 고둥을 그려 넣어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동인지의 발간일자는 서지사항을 밝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5월 19일자로 「규약」이 만들어졌고 다음 모임인 6월 2일 2집 원고를 제출하라는 「消息筒」의 전언으로 볼 때 5월 중순 이후에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싱싱한 어린가지’(瑞枝)라는 뜻을 담은 제명(題名)은 이른 봄 새로 잎눈이 트는 나무처럼 전쟁의 폐허와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생의 꿈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문학을 개척해 보려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서 「규약」 제3조에 잘 드러나 있다. 서지문학청년구락부는 “우리나라 文學運動의 先峰”이 되어 “文學 水準의 質的 向上과 革起的인 新文學 運動을 展開”하고 “研究 批評 親睦을 圖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물론 “혁명적인 신문학 운동”을 표방했으나 그 실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기성문단에 대한 비판과 대타의식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당시 교육제도 안쪽이나 부산지역 문총의 활동에서 국가주의적 시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까닭에 문학의 도구성과 계몽성에 대한 일정한 반발감과 청년문사가 가졌을 범한 순문학 자체에 대한 의식적 지향이 암묵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第一條 本 俱樂部는 瑞枝文學青年俱樂部라 稱함
- 第二條 本 俱樂部는 青年文學同人으로서 構成함
- 第三條 本 俱樂部는 우리나라 文學運動의 先峰이 되어 우리나라 文學 水準의 質的 向上과 革起的인 新文學運動을 展開함과 部員 相互間의 研究 批評 親睦을 圖謀하므로서 目的으로함
- 第四條 本 俱樂部의 入部는 部員 三人 以上의 推薦으로서 代表 이를 承認하므로서 됨
- 第五條 本 部員은 「淑女이며 紳士」이므로써, 모든 行動 其他를 이로서 規範함
- 第六條 本 俱樂部는 顧問을 囑託할 수 있음
- 第七條 本 俱樂部는 下記와 같은 役員을 두어 會務를 担當케 함

15) 『處女地』, 『新作品』, 『白癡』 등의 동인지도 이와 연관되는 이름이다.

- 代表 一名 總務 一名 幹事 各部 一名 (詩部 小說部 戯曲部 評論部)
- 第八條 但 本 俱樂部의 役員 임기는 三個月로 한다.
- 第九條 本 俱樂部는 第三條의 目的을 達成키 爲하여 每月 二回(第一, 二
上曜日 十四時)의 定期的인 研究發表會를 하며 이밖에 臨時 모임을
代表가 必要하다고 認定 時 이를 臨時로 열 수 있음
- 第十條 本 俱樂部의 經理는 有忠特別寄攢金과 部員들의 月攢金 一千円으로
써 充當함
- 第十一條 本 俱樂部는 第三條의 目的을 達成키 爲하여 下記와 같은 일을
隨時로 함
- ㄱ. 同人誌 出版, ㄴ. 研究 批評會, ㄷ. 作品發表會, ㄹ. 親睦會, ㅁ. 其他

서지문학청년구락부의 결성과 동인지의 발행은 송영택¹⁶⁾과 김일곤¹⁷⁾이 주도하였다. 송영택은 광복기 부산중학교(현 부산고 전신) 재학 시절부터 “秋園生, 송 영, 영월”이라는 필명¹⁸⁾으로 『産業新聞』(현 국제신문의 전신)과 『中學生』, 『學生月報』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인으로서의 꿈을 키워 왔던 학생문사였다. 경남상업중학교에 다녔던 김일곤 또한 “김소파”라는 필명으로 광복기 아동잡지 매체의 ‘소년시 현상모집’에 「잔디에 누어」(『소년』 제13호, 1949.8)를 투고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진주중학교의 최계략¹⁹⁾과 진주농림중학교의 이형기²⁰⁾도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드높았던

16) 1933년 부산에서 났다. 천상병과 함께 동인지 『處女地』(1951)와 『新作品』(1952)을 주재하였다. 1953년 모윤숙의 추천으로 「소년상」(『문예』 1953.2)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섰으나 추천을 완료하지는 못했다. 『가을의 서정』(을유문화사, 1959), 『어느 봄날에선가 꿈에선가』(휘문출판사, 1962), 『가난한 밤의 산책』(청강, 1965), 『데미안』(동서문화사, 1977) 등 주로 독일 문학작품을 옮긴 책이 많으며, 『대학 독일 문전』(대학문화사, 1967), 『문학사회』(삼진사, 1975) 등을 내었다.

17) 1932년 부산에서 났으며, 호는 사로(史路)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에 『新作品』(1952), 『詩潮』(1953), 『釜大文學』(1954) 창간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일했다. 『한국경제개발론』(예문관, 1978), 『경제학원론』(유역경영사, 1980), 『복지국가 이야기』(한국경제신문사, 1988) 등의 경제학 서적을 여럿 발간하였다. 회갑기념문집 『경제의 오솔길』(예문관, 1992)에는 경제학 칼럼과 수필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 창작한 소설 8편과 시들이 실려 있다.

18) 김재섭에게 보내는 편지글(『私信』, 『新作品』 제7집, 자유문화사, 1953)을 발표할 당시 “霞紗”라는 필명을 한 차례 사용한 적이 있다.

학생문사였으며, 이들은 송영택과 함께 한국전쟁기 진주와 부산에서 동인지 매체를 통해 수평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청년문학을 이끌었던 주체였다. 지역적 연고를 떠나 광복기의 이러한 투고경험과 문학사회로의 진입이 한국전쟁기 동인지 발간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송영택은 당시 진주농림학교 학생이었던 김재섭과 김동일이 주도한 동인지 『群像』 2집(1951.12)부터 동인으로 참가하여 진주 지역 청년문사와의 수평적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다.²¹⁾ 이들은 다시 훗날 『新作品』에서 좀더 전문적인 차원의 동인활동을 펼쳐 나간다. 최계락도 송영택과 천상병이 주도한 『處女地』에 필진으로 참여하며 연대를 과

19) 1930년 경남 진주에서 나서 1970년 돌아갔다. 1947년 3월 『주간 소학생』 제44호에 동요 「해가 진 남강」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섰으며, 「허수애비」(『새동무』 1947.9), 「靑山崗」(『嶺南文學』 제6집, 1948.10), 「거미줄」(『어린이나라』 1949.10), 「별」(『소년』 1950.3) 등의 동시와 동요, 성인시를 두루 발표하였다. 1949년 무렵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진주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문학청년』을 발간했다고 한다. 1951년에는 동향 출신의 이형기와 함께 동인지 『二人』을 2집까지 내기도 했으며, 1952년에는 유치환의 추천으로 「哀歌」(『문예』 1952.1)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추천을 완료하지는 못했다. 동시집으로 『철독길의 들꽃』(청운출판사, 1966), 『꽃씨』(예문관, 1969), 유고집 『외갓길』(해양출판사, 1981)이 있으며, 1950년대에는 『카로리느』 1-3(문성당, 1954-5) 등의 번역서를 여럿 남기기도 했다. 2001년 그의 문학세계를 기려 최계락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 1933년 경남 진주에서 나서 2005년 돌아갔다. 진주농림학교 5학년이던 1949년 『文藝』 12월호에 「비오는 날」이 추천되어 문단에 나섰다. 1951년 동향의 최계락과 함께 동인지 『二人』을 내기도 했으며, 『處女地』와 『新作品』 동인으로 참가했다. 김관식, 이상로와 함께 공동시집 『해 넘어 가기 전의 기도』(현대문학사, 1955)를 발간했으며, 개인시집 『적막강산』(모음출판사, 1963), 『둘베개의 시』(문원사, 1971), 『꿈꾸는 한발』(창원사, 1975) 등과 『감성의 논리』(문학과지성사, 1976), 『시와 언어』(문학과지성사, 1987), 『시란 무엇인가』(한국문연, 1993) 등의 비평서를 여럿 상재하였다.

21) 이때 이형기는 초청문인으로 『群像』 1집(1951.8)과 2집(1951.12)에 시를 발표함으로써 이들과의 문학적 교분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1집 발행 당시에는 이임상, 김을용, 김재섭, 김동일 등 진주지역 학생문사만으로 동인지를 꾸몄다. 2집부터는 김을용이 빠지고 이창호, 정봉규, 박영재, 박재삼, 송영택이 새롭게 가담하였으며, 당시 진주 문단을 이끌던 설창수, 이경순, 하성근, 조진대, 이형기가 시를 기고함으로써 청년문사들을 제도문단 안쪽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3집(1952.10)에는 김동일, 박재삼, 김재섭, 송영택만이 시를 발표하고 있으며, 김동일의 진주농림학교 은사였던 하성근이 유일하게 힘을 보태었다.

시하게 된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서지문학청년구락부는 전체 16조에 이르는 「규약」을 만들었을 만큼 조직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했다. 문학에 뜻을 둔 청년 학생들의 단순한 친목단체에 만족하지 않고, 수시로 “동인지 출판과 연구·비평회, 작품 발표회”(11조)를 개최함으로써 전문적인 동인지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매월 2회 정기적인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는 규약 9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消息筒」을 보면 6월 2일 작시제목(作詩詩題)을 “五月”로 정해 작품을 발표하고, 김소월의 「山有花」와 오일도의 「내 少女」를 대상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진다고 공고하고 있다. 동인지에 수록된 작품을 볼 때 창작 재능은 탁월하지 않으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써 작품발표회와 연구발표회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 소설, 희곡, 평론부를 두어 문학 갈래의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동인 각자의 고유한 영역 속에서 문학적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장차 전문적인 순문예지로 나아가려는 기대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창간호에서 드러나는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치밀한 계획 아래 동인지를 발간한 것 같지는 않다. 의지와 문학적 역량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었던지 창간호는 전적으로 시갈래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동인회가 의욕적으로 표방한 규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작품 제목만 수록하고 비워둔 이명숙의 「도라지꽃」을 볼 때, 동인지를 내는 데 급급했을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동인들의 신변잡거나 안부에 가까운 내용을 수록한 「私信笺」에서 드러나듯이, 자신들이 표방했던 동인지다운 동인 활동 이전에 내부의 소통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이처럼 동인 내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일 못지않게 고문(「규약」 제 6조)을 촉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한 것은 지역문학세대의 수직적 결합을 염두에 둔 발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복기에는 직접 가르침을 받았든 안 받았든 부산중학교의 김정한과 박종우, 경남중학교의 오영수, 동래

중학교의 이주홍 등 당시 중학교 국어(또는 문법) 교사 가운데는 자신들의 제도문단 진입을 도와 줄 명망가 문인들이 많았다.

동인지의 첫머리에는 「규약」에 이어 「동인주소록」을 마련하여 “1951년 6월 현재” 동인 14명의 면면(성명, 주소, 전공순)을 밝히고 있다. 金默石²²⁾(小説·詩), 恬木²³⁾(戲曲·詩), 千甲允(小説), 宋永月²⁴⁾(評論·詩), 金尙林(散文·詩), 南振熙·金月²⁵⁾·李正雨·河井愛·金福先²⁶⁾·李敬淑²⁷⁾·李福先·權五鑑·金昌珍(이상 詩)이 바로 그들이다.²⁸⁾ 당시 부산 시내 경남상업중학교(김일곤, 남진희)²⁹⁾, 경남중학교(이선우, 김상림), 부산중학교(천갑윤, 송영택, 권오일, 김창진), 부산사범학교(김형수), 남성여중(이정우), 경남여중(하정애, 김복선, 이경숙, 이명숙)에 재학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 친분이라는 고리에다 청년문사로 당시 부산의 학교사회에서 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추천을 받아 동인회에 가입시켰다고 한다. 이 가운데 창간호에 시를 발표한 사람은 송영월(「永遠」), 하정애(「黃昏」), 남진희(「北斗願」), 이정우(「嶺南樓」),

22) 김일곤의 필명이다. 현재 전북 정읍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송영택 시인과 의 면담(2008.5)과 전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이하 동인회의 인적 구성과 면면에 대해서는 송영택 시인의 회고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23) 『處女地』 동인이기도 한 이선우의 필명이다.

24) 송영택의 필명이다.

25) 본디이름은 김형수다.

26) 요산 김정환의 딸이다. 1948년 무렵 요산이 송영택의 부산중학교 은사였던 까닭에 회원 가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27) 이경숙은 1933년 경남 함안에서 났다. 『處女地』, 『新作品』, 『詩潮』 동인으로 활동했다. 1980년 『시문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서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때의 필명은 이은경(李恩景)이다. 낸 시집으로 『건달목을 흐르는 바람의 눈』(시문학사, 1986), 『벽시계와 달력과 나』(빛남, 1992), 『뜨거운 눈빛으로 흐르는 강』(아침, 1997) 등이 있다.

28) 동인지의 끝자리에서 『私信函』, 『消息筒』과 함께 『部員住所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앞에서 든 동인과 함께 이명숙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서지문학청년구락부는 15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29) 훗날 같은 학교 동기생이었던 장관진(전 부산대 국문학과 교수)은 『釜大文學』 동인으로, 홍기중(전 부산대 영문학과 교수)이 『新作品』과 『釜大文學』 동인으로 참가하게 된다.

김상림(「放浪」, 「憧憬」), 김 월(「大地위에서」), 김소과(「임오든 날」), 염일촌(「雨情」) 8명이다.

(1)

산포도
수놓다.

잠이든
少女.

—김상림, 「憧憬」 전문

(2)

달빛도 人跡도 끊인밤/ 龍岩 山속에 村마을이 조는데// 十八세 少女의 울음인양/ 차분한 六月비는 끄칠줄 모른다// 짙은 잿색 하늘이기에/달도 별도 선다는 밤// 열두폭 치마자락 처럼/ 안개가 사르르 마을로 치민다// 사립울도 지붕도 가늘은 山길마저/꼭 잠기게 ……// 번거러운 거리를 멀리/ 새로운 地軸// 오!/이 靜寂 이 雨情// 내 여기 두메에 선채/ 억만장 소낙비가 내려도// 뒷산하늘에 장미색 노을이 피도록/ 靑개구리의 맑은 曲調나 드르리

—염일촌, 「雨情」 전문

폭우가 쏟아지는 밤 두뫾골의 풍경과 화자의 정서를 소박하게 표출한 인용시 (2)에서 두메에 묻혀 “靑개구리의 맑은 曲調”를 듣겠다는 화자의 태도는 현실의 번거로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상화된 삶의 번잡함과 현실의 중압감은 구체적으로 환기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이 다른 시들에서처럼 “꿈”이나 “밤”에 대한 동경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분히 낭만적이다. 즉 현실과 이상의 대립 구도 속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는 결코 현실이 아니라 화자의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세계이다. 6월의 폭우로 상상되는 “새로운 지축”은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중심인 것이다. (1)에서도 드러나듯이 서지문학청년구락부의 시편들은 치열한 내면의 고투 없이 막연한 초월의지를 형상화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 시기 서지문학청년구락부와는 별도로 고등학교 문예부를 중심으로 발간된 동인지도 한국전쟁기 학생동인지문학의 뚜렷한 실체 가운데 하나다.³⁰⁾ 비교적 명망가 문인들이 교사로 포진해 있었던 부산중, 경남중, 동래중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부산사범학교 문예부의 활동은 눈부신 대가 있다. 당시 부산사범학교에서 재학중이었던 윤재원·유종윤이 낸 동인지 『고향』(진달래프린트사, 1951.12)³¹⁾과 조덕순·김희동이 낸 『낙동강』(부산사범학예부 문예반, 1952.9.10)³²⁾이 대표적이다. 서지문학청년구락부 동인들과는 달리 이들의 시가 당시 피난지 후방의 신문 잡지 매체에서 공공연하게 유포되었던 애국담론과 국가주의의 자장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³³⁾ 비록 습작의 잔영이 뚜렷하지만, 이들 청년문사들이 보여준 문학적 열정은 이 시기 학생동인지 문학 활동에서 기억할 만하다.

서지문학청년구락부는 「規約」을 만들어 전문적인 동인의식을 갖추고자 했으나, 동인지는 창간호로 중간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특정 학교의 문예반 활동에서 벗어나 범부산 문학청년결사체라는 점에서 부산사범학교의 『고향』이나 『낙동강』과는 달리 의미가 사뭇 깊다. 한국전쟁기 신생의 꿈을 안고 돌아난 어린씩이 굶은 가지로 성장하듯이, 서지문학청년구락부

30) 진주고등학교 학예부에서 낸 『年輪』이 대표적이다. 진주 지역의 학생동인회는 지역 문인들과의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麥鄉』을 개제한 『年輪』 제3집(1951.2)에 설창수, 이경순, 방인영, 이형기, 최계락 등 당시 진주 지역의 명망가 문인들이 작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문사들의 문학 활동에 힘을 실었다.

31) 윤재원은 경남 의령에서 났다. 초중등학교 교사를 거쳐 경성대학교 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일했다. 낸 책으로 『국어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형설출판사, 1989)가 있다. 유종윤은 경남 밀양에서 났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임한 뒤, 현재 부산에서 문필활동을 하고 있다. 수필집으로 『그대 있음에』(지평, 1995)와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세종출판사, 2004)가 있다. 『고향』에 각각 6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32) 윤재원과 유종윤의 문예반 후배로, 조덕순이 27편, 김희동이 26편을 발표하였다.

33)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4, 276~279쪽을 참고할 것.

동인들은 훗날 『處女地』, 『新作品』, 『詩潮』로 자연스럽게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1950년대 부산 지역 학생 동인지문학을 이끌고 나갔다.

4. 『處女地』³⁴⁾, 지역적 연대와 필진의 확대

송영택의 회고에 따르면, 『處女地』 제1집(1951.12.3)의 발간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 1951년 11월초 송영택이 '독립기념 제2회 영남예술제'(11.1~5)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천상병을 우연히 만나 동인지 발간을 협의했다고 한다. 한글시 백일장에서 장원을 한 송영택(당시 부산중학교 졸업반)은 부산에 돌아온 직후 곧바로 천상병(당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학년)³⁵⁾과 협의하여 『處女地』를 발간했던 것이다. 제호(題號)는 『新作品』과 마찬가지로 천상병이 제안해서 정했다고 한다.

詩同人誌 하나 가지자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것이나마 오늘 이러한 것을 꾸며놓고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라기보다 오히려 기쁜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崔啓洛氏와 同人 李先雨氏의 좋은 作品이 와 있으나 編輯關係로 다음의

34) 지금까지 부산·경남 지역문학사에서는 『處女地』를 마산 지역문학의 자산으로 편입시켜 왔다. 한정호와 이광석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한정호, 「지역문학 발굴자료: 피난지 마산의 동인지 『처녀지(處女地)』, 『지역문학연구』 제12호, 경남·부산 지역문화회, 2005.11, 195쪽.; 이광석, 「마산 시문학사 I」, 『마산문인대표작선집』 1, 마산문인협회, 2009, 449쪽. 그러나 동인들의 활동 기반을 따지자면 부산 지역문학의 자산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기 지역문학의 범주 설정이 단순히 발행소나 인쇄소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은 열악한 출판환경에 비해 출판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인근 마산 지역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의 출판물은 인쇄소나 발행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발간 주체의 개인적 연고나 친분에 따라 인쇄소나 발행소를 결정하는 일이 잦았다.

35) 당시 천상병은 부산 수정동 형님 집에서 머물며, 마산 본가를 오가고 있었다. 이때 학과 공부보다는 광복동에서 피난문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일이 일과였다고 한다.

第二輯으로 미루게 된 것이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영택, 「後記」 전문

『處女地』 제1집은 1951년 12월 3일 전문 동인지 못지않은 장정에다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분량은 30쪽이다. 인쇄소는 마산의 평민인쇄소이며, 발행소는 서울 제일문화사이다.³⁶⁾ 평민인쇄소는 천상병의 마산공립중학교 스승인 김춘수가 불과 4개월 전에 『旗』(부산: 문예사, 1951.7.25)를 발간한 곳이다. 이를 연고로 동인지를 손쉽게 마산에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송영택의 회고에 따르면 제일문화사는 부친의 친구가 경영하는 곳이어서 명의만을 빌렸다고 한다.

발간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³⁷⁾, 『處女地』는 동인지 『二人』의 경우처럼 천상병과 송영택의 소시집이라 해도 무방하다. 천상병은 마산공립중학교 5학년이던 1949년 11월 『竹筍』 11집에 1949년 「피리」, 「공상(空想)」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섰다. 김춘수의 『구름과 장미』를 읽고 자신도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김춘수의 추천으로 등단했을 가능성이 높다.³⁸⁾ 최계락과 송영택은 영남예술제의 인연에다 광복기 활발한 투고 경험으로 익숙하게 알던 사이였다. 송영택과 천상병의 교분 관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최계락과 송영택 사이에는 조금 더 특별한 결합 인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영남예술제를 통해 문학적 재능을 펼쳐 보인 송영택이 자신보다 앞서 진주에서 『문학청년』을 발간하고 있었던 최계락에게서 느꼈던 동질성이라 볼 수 있다. 이선우는 송영택과 서지문학청년구락부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지녔다. 부산 지역에 한정되었던 『瑞枝』의 매체 발간 경험에서 한발 나아가 지역적 연대를 포함으로

36) 『第二處女地』(1952.10.15)에서는 인쇄소가 마산합동인쇄주식회사로 바뀌었고, 발행처는 동일하다.

37) 「후기」에서 보듯이 최계락과 이선우의 원고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영택은 당시 이들의 작품을 서랍 속에 넣어 두었는데 쥐가 뜯어 먹은 까닭에 수록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38)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학회, 2009.8, 176쪽.

써 외연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1집에는 송영택이 5편의 시(「五月」, 「祈禱」, 「江가에서」, 「가을·노을·祈禱」, 「달밤」)와 짧은 편지글(「편지(第一信)」)을, 천상병이 4편의 시(「約束」, 「갈대」, 「갈매기」, 「나무」)와 비평적 산문 「그리움에는 理由가 있다-詩와 그 靑年들은 가고 있다」를 상재하였다. 시들은 지극히 평화롭고 부드러운 정서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전통서정시 계열에 속하며, 체념적이고 감상적인 의도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아래 인용시의 제목처럼 '기도'나 "그리움"(천상병, 「갈매기」)은 천상병과 송영택의 시편을 관통하는 정서이다. 그러나 전쟁기의 현실은 이처럼 쉽게 초극하거나 정화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疊첩이 싸인/ 深深 山속에// 부엉이 우는/ 부엉이 울음속에// 달을 보내는
/ 木香氣 가는속에// 흰나리 피듯/ 그렇게 죽게 하소서

—송영택, 「祈禱」 전문

환한 달빛속에서/ 갈대와 나는/ 나란히 소리없이 서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속에서/ 안타까움을 달래며/ 서로 애트지게 바라보았다.// 환한 달빛속
에서/ 갈대와 나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천상병, 「갈대」 전문

시와는 달리 천상병의 산문은 동인지 제호에서 환기되는 원초성과 생명성, 건강성을 문학과 청년의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달리 표명하지 않은 처녀지동인회의 동인 이념으로도 읽힌다. 청년들의 피는 "시대와 또 다른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다. 청년세대의 정열과 용기로 이러한 시대를 활짝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제호인 '처녀지'는 한국전쟁기라는 혹독한 "유혈의 시대"를 넘어서 신생의 기운으로 충만한 새로운 시대이자 동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문학적 지향으로 볼 수 있겠다.

현실에는 '明白한 事實'이 당연한 듯이 君臨하고 있다. 그 '明白한 事實'은 또 無限으로 향하여 疾走하는 怒濤와 같은 靑年들의 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다. 歷史는 流血의 時代가 期待될 때는 아낌없이 그들의 피를 뿜어 올린 靑年들을 證明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는 푸른 하늘 높이 떠올라 꽃피었다. 또는 무지개가 되어 마음과 마음과의 通路가 되고 時代와 또 다른 時代로의 架橋가 되었다. 이리하여 힘은 언제나 疾患을 治癒한 것이었다. 二, 三人의 靑年들의 아니 수千 수萬의 靑年들은 그들의 情熱이 아직 다 하지 않았다는 微笑를 입가에 띠워가면서 걸어가고 있다. 眞正한 戰場에는 위험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最高의 勇氣로서 大河와 같이 開花의 季節을 밀고 나갈 것이다.

—천상병, 「그리움에는 理由가 있다—詩와 그 靑年들은 가고 있다」(가운데서³⁹⁾)

『第二處女地』라는 제호로 발행된 2집에서는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다. 1집에 견주어 화려한 장정이 돋보이는 활자본으로 발행되었으며, 분량은 40쪽이다. 2집은 편집과 재정을 도맡았던 송영택이 뒤로 물러나고 천상병이 주도했다. 재정은 당시 천상병의 대학 동기생이었던 마산 출신의 김정년이 맡았다고 한다. 차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젊은 靈魂의 呼器	郭鍾元
雪夜	崔啓洛
風景(二)(三)	宋永擇
山	李明子
별·微光	千祥炳
無花果·맛바람	金正年
琉璃·石膏	李東俊
별	李敬淑
별	柳承瑾
詩에 關한 斷想	金春洙
별·바레리	金聖旭
人間像의 새로운 城	千祥炳
鍾	金善吾

39) 『處女地』 제1집, 제일문화사, 1951.12, 27쪽.

1집에서 동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선우가 빠진 대신, 서지문학청년구락부의 이경숙과 청포도동인회의 이동준⁴⁰⁾이 가입했다. 이명자, 김선오는 이력을 확인하기 힘들다. 류승근은 훗날 『新作品』 제5집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동인회에 가입한다. 연령을 보아 곽종원과 김춘수, 김성옥은 정식 동인이 아니라 초청문인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 문총 사무국장으로 평론가 곽종원은 당시 상명여고 교감으로 일하며 부산 토성동에 머물고 있었다.⁴¹⁾ 당시 문단의 실세였던 곽종원의 평문을 청탁한 것은 동인회가 지닌 얽은 인적 구성과 필진의 한계를 명망가 외부 문인들을 초빙함으로써 일정 수준 보완하려는 천상병의 적극적인 시도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존재감과 동인회의 문학적 좌표를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한 의도 또한 강하게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곽종원은 짧은 평문에서 다음과 같이 송영택과 천상병의 시들을 논평한다.

新人에게 있어서 最惡의 敵은 感性의 自己 陶醉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恒常 열은 뿌리에 매달리는 것보다 깊은 뿌리에 生命을 連絡시키는 데 怠慢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早熟한 觀照의 世界와 超脫한 達觀과 지나친 隱遁의 態度 등 이들 모두가 값비싼 것이면 것일수록 安價하게 마련된 觀念의 所産이 아니기를 希求하는 同時에 鍊磨된 技巧에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感興의 生命 없는 造作으로 자라나는 ○魂(靈魂-글쓴이)이 挫折하는 일 없이 큰 그릇으로서 大成하는 것을 두 분을 위해 祈願하여 마지 않는다.⁴²⁾

—곽종원, 「젊은 靈魂의 呼器-『處女地』 輯을 읽고」 가운데서

- 40) 이동준은 마산결핵요양소에서 낸 동인지 『靑葡萄』 1집(청포도동인회, 1952.9)부터 4집(1954.1)까지 매호마다 작품을 발표하였다. 『新作品』 제1집(1952.3)부터 5집(1953.5)까지 매번 작품을 발표하다가 5집 이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1954년 이후 지병인 폐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한다.
- 41) 『現存韓國文學人總覽』, 『文化世界』 1권 3호, 부산: 희망사, 1953.9, 204쪽. 「문단인 명단」(『新潮』 제3호, 부산: 신조사, 1951.5, 151쪽)에서는 상명여중 교무주임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42) 『第二處女地』, 제일문화사, 1952.10.15, 28쪽.

비판의 핵심은 이들 시가 공통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조숙한 관조의 세계”와 “초탈한 달관”, “지나친 은둔적 태도”이다. 단순히 관념의 소산이 아니라 현실 깊숙한 곳에 뿌리박은 데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신진시인이 쉽게 범하기 쉬운 “감성의 자기도취”나 “감각의 생명 없는 조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집과는 달리 2집의 인적 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부산과 진주, 부산과 마산, 마산과 통영)과 세대 간의 수평적·수직적 결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집의 특징은 천상병과 송영택의 극적 만남으로 촉발된 동인회의 결성, 천상병과 은사 김춘수의 연고로 이루어진 마산에서의 인쇄 출판에 있다. 반면 2집에서는 김춘수의 필진 참여, 통영 출신이자 청마의 사위이기도 한 비평가 김성욱의 가세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김성욱의 영입에는 김춘수의 지역적 연고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훗날 김춘수와 김성욱은 『新作品』 7집(1954.3)과 8집(1954.12)에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處女地』는 이 시기 경남·부산 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필진 교환을 통해 전문적인 수준의 동인지로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매체라 하겠다.

5. 『新作品』, 회람지에서 문예지로의 도약

신작품동인회는 1952년 3월 『新作品 別冊』 1집을 유인본으로 발행한 이래 6집(1953.9)까지 동일한 장정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제호에 ‘별책’이라는 용어를 부가한 까닭은 전문적인 동인지 형식을 갖추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활자본으로 간행한 7집(1954.3)부터 『新作品』이라 했다. 동인지의 성격이 급변하는 7집을 기점으로 신작품동인회를 전후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新作品』은 8집(1954.12)으로 종간되기까지 1년에 두세 호를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였다. 『瑞枝』가 창간호로 단명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8집까지 간

행한 것은 한국전쟁기 유례가 드문 일이다. 작품의 수준과는 별개로 동인들의 유대와 문학적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8집에 이르기까지 시 72편, 평론 4편, 번역문 1편, 편지글 2편, 기타 1편을 실었다.⁴³⁾

호 수	발행 일자	작품 발표자	수록 작품수	비고
『新作品 別冊』 제1집	1952. 3.	이선우, 이덕명, 천상병, 하정애, 김창진, 이행자, 이경숙, 이동준, 남진희, 송영택	시 10편	24쪽
『新作品 別冊』 제2집	1952. 6.16.	송영택, 김동일, 이동준, 김소과, 천상병, 김진호	시 6편	16쪽 50부 한정
『新作品 別冊』 제3집	1952. 7.12.	김재섭, 송영택, 이경숙, 김소과, 김동일, 이동준, 이행자, 김진호	시 8편	20쪽 80부 한정
『新作品 別冊』 제4집	1953. 4.15.	송영택, 이행자, 이동준, 김재섭, 김소과, 고석규, 김동일, 최전만, 남진희, 이경숙	시 10편	24쪽 100부 한정
『新作品 別冊』 제5집	1953. 5.20.	천상병, 이경숙, 고석규, 이동준, 송영택, 류승근, 김소과, 김재섭	시 8편	24쪽
『新作品 別冊』 제6집	1953. 9.25.	천상병, 김재섭, 조영서, 손경하, 송영택, 최용만, 류승근, 고석규, 김소과, 하연승	시 10편	26쪽
『新作品』 제7집	1954. 3.1.	김성옥, 고석규, 김재섭, 조영서, (재섭(송영택)), 하연승, 손경하, 천상병, 송영택	시 8편 비평 2편 편지글 1편	42쪽 1300부 한정
『新作品』 제8집	1954. 12.31	홍기종, 김성옥, 고석규, 김춘수, 손경하, 한성기, 하연승, 류승근, 이수복, 송영택, 윤혜승, 유병근, 조영서, 하성근, 김재섭, 김영덕	번역문 1편 비평 2편 시 12편 편지글 1편	78쪽

전문적인 동인지 체제를 갖춘 7집이 나오기 전까지 서지문학청년구락

43) 『新作品』에 관한 연구는 송창우,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 경남대 국문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5.12), 32~39쪽; 양왕용, 「격동기의 중진들과 문학청년들의 활발한 시작활동—해방기와 전쟁기의 부산시단」, 『한국 현대시와 지역문학』, 작가마을, 2006, 123~131쪽을 참고할 것.

부 동인들이 매체 발간을 주도했다. 이선우, 하정애, 이경숙, 남진희, 송영택, 김소파(김일곤)가 그들이다. 본격 동인지의 형식을 갖춘 초기에는 특정한 경향으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선우는 개인 사정으로 탈퇴했으며⁴⁴⁾, 강철주는 소설이 없어 제명당했다.⁴⁵⁾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동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권오일, 강철주, 오금주 3명이다. 전기 신작품동인회가 서지문학청년구락부와 다른 점은 고등학생(이덕명, 이행자, 오금주)과 대학생의 연합체라는 점이다. 그만큼 6집까지는 「瑞枝」와 크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동인지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이 없었던 셈이다. 4집부터 고석규⁴⁶⁾가, 6집부터 조영서⁴⁷⁾, 하연승⁴⁸⁾, 손경하⁴⁹⁾가, 8집부터 한성기⁵⁰⁾, 이수복⁵¹⁾, 윤혜승⁵²⁾이 새

44) 「消息筒」, 『新作品 別冊』 제1집, 1952.3.

45) 영월, 「後記」, 『新作品 別冊』 제3집, 19쪽.

46) 193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나서 1958년 돌아왔다. 연행(沿革)이라는 필명을 썼는데, 『釜大文學』 제1집(1953.5)에 '高沿革'이라는 이름으로 비평 「抵抗의 詩」를 발표하였다.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재학 중에 동인지 『珊瑚』(1953)와 『詩潮』(1953)를 주재하였다. 『新作品』 제4집(1953.4)부터 8집까지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이후 1954년에는 『群像』 동인이었던 김재섭과 『超劇』(삼협문화사, 1954.6)을 발간했다. 1956년에는 『新作品』 동인이었던 손경하, 하연승, 조영서, 김성욱 등과 함께 『詩研究』 제1집(산해당, 1956.5)을 간행하기도 했다. 1993년 부산의 오늘의 문예비평 동인이 「고석규 유고전집」 5권(책읽는사람, 1993)을 엮어 유작들을 갈무리했으며, 그의 비평정신을 기리고자 고석규비평문학상을 제정하여 1996년 제1회 수상자를 낸 이래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다.

47) 1932년 경남 창원에서 났다. 조지훈의 추천으로 『文學藝術』 1956년 8월호에 「벽에는」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섰다. 시집으로 『언어』(삼애사, 1969), 『햇빛의 수사학』(일지사, 1978), 『새 하늘에 날개를 달아준다』(문학수첩, 2001)가 있다.

48) 1933년 진주에서 났다. 진주고 재학 중 『年輪』(1951)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부산대 경제학과 재학 중 『新作品』, 『詩潮』 동인으로 활동했다. 시집으로 『이슬의 탄생』(문학예술사, 1997), 『나비의 생태학』(동학사, 2007)이 있다.

49) 1929년 창원에서 났다. 부산대 상학과에 재학 중이던 1953년 『新作品』, 『詩潮』 동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詩研究』(1956), 『詩旗』(1962), 『新語』(1965) 동인으로 참가했으며, 시집으로 『忍冬의 꿈』(예문관, 1985)이 있다.

50) 1923년 함경남도 정평에서 나서 1984년 돌아왔다. 1952년 『文藝』 5·6합병호에 「驛」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55년 『現代文學』 4월호에 「아이들」이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섰다. 시집으로 『山에서』(배영사, 1963), 『落鄕 以後』(할문사, 1969), 『失鄕』(현대문학사, 1972) 등이 있으며, 작고 이후 시편들을 묶어 『한

로 가담하고 있지만,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새로운 동인을 영입함으로써 쇄신의 계기가 주어졌는데도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결국 동인의 인적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작품동인회는 『處女地』(이선우, 천상병)와 『靑葡萄』(이동준), 『群像』(김재섭, 김동일⁵³) 동인회와의 지역적 연대와 교분, 새로운 동인의 영입으로 외연의 확대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청년 문학단체라 하겠다.

주조적 경향은 『瑞枝』와 마찬가지로 전통 서정주의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함양 미달의 소품에 불과한 작품도 더러 옛보인다.

生命이 藝術보다 先行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詩는 우리들의 內的 自我的 追求와 記錄 以外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하자면 우리 自身에 게 가장 충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詩를 쓰는 우리들의 態度입니다.

—영택, 「後記」 가운데서⁵⁴

천상병과 함께 했던 『處女地』에서 보인 시적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이다. 시는 “내적 자아의 추구하고 기록”이라는 규정을 통해 신작품동인회의 문학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문학에 대한 진지한 자각을 바탕으로 동인들의 정체성을 구현한 진술은 아니다. 개인의 자

성기시전집』(푸른사상, 2003)이 간행되었다.

- 51) 1924년 전남 함평에서 나서 1986년 돌아갔다. 한국전쟁기 목포에서 간행된 『갈매기』(1951)에 「悔恨」, 「아침」 등을 발표했으며, 1955년 『現代文學』 3월호에 서정주의 추천으로 「蟋蟀」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섰다. 시집으로 『봄비』(현대문학사, 1968)가 있으며,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하기도 했다. 작고문인전집 발간 사업으로 『이수복 시전집』(현대문학, 2009)이 간행되었다.
- 52) 1928년 경북 안동에서 났다. 1955년 『現代文學』 3월호에 이수복, 구자운과 함께 서정주의 추천으로 「待春賦」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섰다. 시집으로 『哀歌』(동서문화사, 1958), 『無告之民』(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 1980), 『사랑이야기, 그리고 찬가들』(배영사, 1988) 등이 있다.
- 53) 1932년 남해에서 났으며, 필명은 김 윤이다. 진주농림학교 재학 중 『群像』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동국대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시집으로 『명든 季節』(현대문학사, 1968), 『바람과 구름과 太陽』(현대문학사, 1971)이 있다.
- 54) 『新作品 別冊』 제3집, 19쪽.

의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시는 결국 내면 탐구를 지향하는 순수시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정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기 학생동인회의 명칭에는 생명성, 원초성, 새로움에 대한 지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瑞枝』와 『處女地』, 『新作品』은 이러한 특징을 오롯이 지니고 있는 이름이다. 천상병이 명명한 '신작품'이라는 제호에서 어떤 의도와 지향을 읽어낼 수 있을까? 기성문단에서 보여준 난해시나 애국시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문단의 특정한 경향에 대한 대타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이름을 부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이 6집까지 보여주는 주류적 경향은 리리시즘이다.

1	
現代詩	하아트·크레인(홍기중 옮김)
靑馬論 序說	김성욱
地平線의 傳達	고석규
2	
꽃밭에 든 거북	김춘수
白晝	손경하
길	한성기
도시와 황소	하연승
伐木	류승근
葡萄	이수복
無題	송영택
女人에게	윤혜승
寒月	유병근
落日	조영서
이런 밤	하성근
途上	김재섭
3	
<私信>抒情的 人間	김춘수
1954年과 우리들의 選擇	김영덕

7집에 이르러 『新作品』은 전기의 시갈래 위주의 등사본 체제에서 벗어나 발행부수를 크게 늘리고 갈래의 다양성까지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동

인지 체제로 전환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제8집 목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변화는 필진의 확대와 전문성에서 비롯되었다. 차례에서 '특별기고'나 '초대작품'이라는 표지가 없어 동인과 비동인의 구별이 모호하지만, 전기 『新作品』에서 보였던 연령별·지역별 수평적 결합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추려는 의욕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것은 김성욱, 조영서, 고석규, 송영택, 김재섭으로 구성된 편집동인의 면면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6집부터 등장한 조영서, 손경하, 고석규, 하연승, 유병근⁵⁵⁾은 훗날 제도문단에 나서게 된다.

6. 『詩潮』, 대학문단의 형성과 개화

시조동인회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문학단체이다. 당시 문리과대학이던 경제학과(김균, 김일곤)와 국어국문학과(고석규, 권경옥, 이말녀, 김영수), 영어영문학과(홍기종, 이경숙) 출신들이 많아 문리과대학 중심의 문학단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작품동인회가 9개월 동안의 침묵을 깨고 4집을 발간하기 직전인 1953년 4월 1일 제1호를 발간하였다. 비슷한 시기 간행된 『詩潮』 1호와 『新作品 別冊』 4집, 『詩潮』 2호와 『新作品 別冊』 5집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한결 수준이 높다. 동인지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양식을 실험하면서 단상이나 수상에 가까운 글들은 'Note', 서평이나 단평은 'Variety'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55) 1952년 통영에서 났다. 해군 복무 중 『機關兵의 手記』(『해군장병작품집』, 제1집, 해군본부정훈감실, 1954.3)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月刊文學』에서 모집한 제4회 '신인작품모집'에서 동시 『봄빛』(1970년 4월호)이 당선되어 본격적으로 문단에 나섰다. 시집으로 『沿岸集』(연문출판사, 1978), 『遺作展』(세화기획, 1983), 『西神캠프』(시로, 1986), 『지난 겨울』(시로, 1988), 『사일구遺史』(시로, 1990), 『설사당꽃이 떠나고 있다』(전망, 1993), 『금정산』(한국문연, 1995), 『돌 속에 꽃이 핀다』(빛남, 1998), 『곰팡이를 뜯었다』(시와사상, 2001), 『엔지세상』(작가마을, 2005)이 있다.

호 수	발행 일자	작품 발표자	수록 작품수	비고
『詩潮』 제1호	1953. 4.1.	고석규, 김연수, 남진희, 김소파	평론 1편, Note 1편 시 8편, Variety 1편	35쪽 150부 한정
『詩潮』 제2호	1953. 5.1.	홍기중, 황준호, 김연수, 장세호 김소파, 남진희	번역문 2편, Note 2편 시 8편, Variety 6편	51쪽
『詩潮』 제3호	1953. 7.10.	김연수, 고석규, 남진희, 손경하 이경숙, 김소파, 하연승, 박채규	시 8편	20쪽 100부 한정
『詩潮』 제4호				미확보
『詩潮』 제5호	1953. 10.15	손경하, 김연수, 이경숙, 김소파 하연승, 김 균, 김형수, 남진희	시 8편	19쪽 100부 한정
『詩潮』 제6호	1953. 11.25	고석규, 김 균, 하연승, 김연수 김소파, 권경옥, 김형수, 김영수 이말녀, 남진희, 손경하	시 11편	27쪽 120부 한정

제1호에는 고석규의 시와 평론 「象徴의 遍歴」을, 김연수, 남진희, 김소파가 시를 싣고 있다. 필진 가운데 김소파, 이경숙, 고석규, 남진희, 손경하(상학과), 하연승(경제학과), 홍기중(영문학과)은 『新作品』 동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2호(1953.5.1)에는 장세호, 3호(1953.7.10)에 손경하, 이경숙, 하연승, 박채규, 5호(1953.10.15)에 김 균, 김형수가 새롭게 참가하여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순수한 『詩誌』 하나만은 늘 가지고 싶었고 그 주변의 노력이 이제 결정되었다.

- 고석규, 「編輯後記」 가운데서⁵⁶⁾

고석규는 순수한 시동인지를 가지고 싶었던 자신의 뜻을 이루었는데도 문학 활동의 장을 『詩潮』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가 관여했던 동인지는 셋이다.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시동인지 『珊瑚』가 처음이다. 김정환은 고석규가 『珊瑚』를 발간한 시기를 대학 1학년 때⁵⁷⁾, 그러니까

56) 『詩潮』 제1호, 시조동인지, 1953.4.1, 35쪽.

57) 김정환, 「고석규에의 추억」, 『여백의 존재성』, 지평, 1990, 18쪽.

1952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珊瑚』는 1953년에 2집까지 발행되고 더 이상 호수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⁸⁾ 다음은 『詩潮』와 김일곤의 권유로 4집부터 참여한 『新作品』이다. 고석규는 왜 이토록 시동인지에 대해 짐작했을까 사뭇 궁금해진다. 아마도 이 시기 고석규는 비평과 시갈래를 넘나들며 장차 한국문학의 새로운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자기 모색의 과정에 놓여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詩潮』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제1회 시낭독회를 개최하고 『作品集』(부산대학교 학예부, 1953.6.27)을 발행한다. 『詩潮』 동인이었던 남진희, 하연승, 김연수, 이경숙, 박채규, 김소과, 손경하, 고석규, 김형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관진, 주 평, 백상근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작고문인인 이육사, 한하운, 윤동주의 시를 각각 1편씩 수록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때 시낭독회에서 발표된 시들은 『詩潮』 3호에 재록되지는 않았다. 학예부가 주최한 시낭독회⁵⁹⁾는 동인지 『新作品』, 『詩潮』, 『釜大文學』(1953년 5월)⁶⁰⁾, 『珊瑚』의 발간 과 함께 부산대학교 학생문단의 형성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釜大新聞』(1955)과 『學報』(1957) 학생문사들에게 발표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열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석천동인회의 『石泉』(1957), 국문학과 문학회지인 『새별』(1958) 등이 잇따라 발간됨으로써 초창기 부산대학교 문단을 형성하게 된다.

58) “『珊瑚』 2집을 내고 나니 시간의 여유가 한데 안겨진 것 같은 기분이다.”(일기 1953.10.1), “『珊瑚』 3집을 기어이 활자화 할 수 없으리라는 추산이다.”(일기 1953.11.2) 고석규, 『청동일기』, 책읽는사람, 1993, 132쪽, 158쪽.

59) 제5회 시낭독회 작품집이 1957년 6월 발행된 까닭에 시낭독회는 1년에 한 차례 씩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0) 글쓴이가 소장하고 있는 『釜大文學』이 과본이라 정확한 발행일자를 알 수 없다. 그러나 『釜大文學』 제1집의 발간일을 1953년 5월로 보는 까닭은 『新作品』 4집(1953.4.15)과 『靑葡萄』 3집(1953.5.1)의 ‘책광고’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新作品』 5집이 1953년 5월 20일 발행된 점을 고려할 때 5월 초순이나 중순에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7. 마무리

이 글은 한국전쟁기에 간행된 부산 지역 학생동인지 매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전쟁기 문단재편과 문학 장의 변화, 청년문사들을 문학 장(場)으로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었던 문학 환경, 학생동인회의 형성 기반과 결성 과정, 인적 구성, 이념적 지향, 동인들의 진퇴양상, 동인회의 펼친 교류와 지역적 연대, 제도문단으로의 진입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전쟁기 문단재편으로 인한 피난문단의 형성과 광범위한 매체의 생산과 향유 경험, 부산·경남 문학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매체 발간의 경험, 영남예술제 백일장 등 전국적인 문학 행사의 개최가 학생동인지 시대를 활짝 연 토대로 작용하였다. 특히 문총(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 주도한 전시문예강좌, 시낭독회 등의 다양한 행사는 부산 지역 문학 예술의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청년문사들의 문학적 열망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잡지 매체의 발간은 학생문사들의 창작 의욕을 부추기면서 본격적인 학생문단 시대를 여는 디딤돌로 작용하기에 충분했으며, 전국의 명망가 문인들이 두루 참석한 영남예술제 백일장은 청년문사들의 문학적 열정을 한껏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학생동인회는 뚜렷한 문학이념을 표방한 전문적인 문학동인회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瑞枝』문학청년구락부가 처음으로 결성된 이래 학생동인회는 『處女地』, 『新作品』, 『詩潮』로 자연스럽게 매체 발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1950년대 부산 지역 동인지문학을 주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동인회는 부산·경남 문학청년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국전쟁기 이후 부산·경남지역문학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체로 성장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群像』과 『塔』, 『靑葡萄』 동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연대는 이 시기 문학후속세대의 수평적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학생동인회는 처음부터 뚜렷한 매체이념을 표방하거나 주류문단

에 대한 대타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瑞枝』, 『處女地』, 『新作品』 등의 동인지 이름에서 알 수 있는바, 기성 문단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문학을 수립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동인지 결성의 취지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학생동인회의 창작 활동은 전통적인 서정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전후 사회의 지배적인 규율로 자리한 반공주의·애국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순수문학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新作品』 7집과 8집에서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던 주류 문단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전망은 '모더니즘 批判'을 특집으로 내걸은 『詩研究』(1956)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詩研究』는 학생동인회의 문학 활동이 한국전쟁기 부산·경남 지역에 연고를 둔 습작문단시대를 벗어나 제도문단으로 나아가면서 일정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韓國詩는 새로운 反省期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詩의 보다 根元을 헤쳐 볼려는 熱情으로 다시 한 번 韓國詩의 過去를 廣範하게 反省해 보고, 앞으로의 展望을 꾀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여, 詩誌 『詩研究』는 每號마다 <問題>를 내걸고, 이것을 汎詩壇的(되도록이면 學界의 힘까지 빌려)으로 檢討해 감으로써 詩의 眞摯한 研究誌가 되는 同時에 韓國詩의 可能한 새로운 展望을 찾으려는 것이다.⁶¹⁾

넷째,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 학생동인회는 인적 구성의 변화와 맞물려 지역(부산과 진주, 부산과 마산, 마산과 통영) 간의 연대, 세대 간(기성세대와 문학후속세대)의 수평적·수직적 결합과 필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경남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수준을 갖춘 동인

61) 「展望에서 反省으로」, 『詩研究』 제1집, 산해당, 1956.5, 5쪽. 이 매체의 편집위원은 김현승, 김춘수, 김운성, 김성욱, 김종길이다. 『新作品』 동인이었던 손경하, 이수복, 하연승, 조영서가 시를, 김성욱, 고석규가 비평을 실었으며, 『處女地』 동인 천상병이 번역글을 실었다. <後記>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집관계상 작품을 수록하지 못했으나 김재섭도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유치환, 윤일주, 조지훈, 김춘수, 김현승, 송옥, 남운철, 신동집이 참여했다.

회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구성원들이 제도문단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전쟁기 학생동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시간적 편차를 두고 제도문단에 들어선 이들은 송영택, 천상병, 최계락, 김동일(필명 김 윤), 고석규, 김재섭, 조영서, 손경하, 하연승, 유병근, 이경숙, 이수복, 한성기, 윤혜승 등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천상병이나 최계락, 이형기, 김성욱의 경우처럼 이미 등단했거나, 동인 활동의 과정에서 제도문단으로의 진입 절차를 밟고 있었던 시인도 있었다.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은 피난문단이 일시에 해체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학생동인회의 지속적인 문학 활동은 부산 지역의 독자적인 문학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지속적으로 매체를 발간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동인회는 문학제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학생동인회의 문학 활동은 부산·경남 지역문학사에서 문학후속세대의 성장과 발전, 문학세대의 수직적 연대와 지역의 수평적 결합, 제도문단의 진입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 핵심어: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 매체, 학생동인회, 동인지, 학생동인지, 『瑞枝』, 『新作品』, 『處女地』, 『詩潮』

<참고 문헌>

1. 일차 자료

- 『瑞枝』, 제1집, 부산: 서지문학청년구락부, 1951.6(유인본).
 윤재원·유종윤, 『고향』, 부산: 진달래프린트사, 1951.12(유인본).
 조덕순·김희동, 『낙동강』, 부산: 부산사범 학예부 문예반, 1952.9.10(유인본).
 『處女地』, 제1집, 서울: 제일문화사, 1951.12.

- 『第二處女地』, 서울: 제일문화사, 1952.10.
『群像』 제1집, 진주: 영남문화회, 1951.8.
『群像』 제2집, 진주: 영남문화회, 1951.12.
『群像』 제3집, 진주: 정문사, 1952.10.
『新作品 別冊』 제1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2.3(유인본).
『新作品 別冊』 제2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2.6(유인본).
『新作品 別冊』 제3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2.7(유인본).
『新作品 別冊』 제4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3.4(유인본).
『新作品 別冊』 제5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3.5(유인본).
『新作品 別冊』 제6집, 부산: 신작품동인회, 1953.9(유인본).
『新作品』 제7집, 부산: 자유문화사, 1954.3.
『新作品』 제8집, 부산: 삼협문화사, 1954.12.
『詩潮』 제1호, 부산: 시조동인회, 1953.4(유인본).
『詩潮』 제2호, 부산: 시조동인회, 1953.5(유인본).
『詩潮』 제3호, 부산: 시조동인회, 1953.7(유인본).
『詩潮』 제5호, 부산: 시조동인회, 1953.10(유인본).
『詩潮』 제6호, 부산: 시조동인회, 1953.11(유인본).
『釜人文學』 제1집, 1954(유인본).
『셋별』 1집, 셋별문화회(부산대 국문학과 문학회지), 1958.7.
『第一回 詩朗讀會 作品集』, 부산대학교 학예부, 1953.6(유인본).
『詩朗讀會 作品集』 IV, 부산대학교 학예부, 1956.6(유인본).
『第5回 詩朗讀會 作品集』, 부산대학교 문예부, 1957.6(유인본).
『石泉』 제4집, 부산: 석천동인회, 1957.1(유인본).
김영덕 엮음, 『一線軍警慰問 꽃다발』 제1집, 부산:군경위문수첩발간위원회,
1951.4.15.
『韓國少年詩集』 제1집, 부산:대양출판사, 1954.
고석규·김재섭, 『超劇』, 부산: 삼협문화사, 1954.6.
이해주, 『位置』, 부산: 세기문화사, 1959.

『고석규 유고전집』 1~5, 부산: 책읽는사람, 1993.

2. 이차 자료

- 『文壇人名單』, 『新潮』 제3호, 부산: 신조사, 1952.1, 150~151쪽.
- 『執筆詩人略歷』, 『愛國詩三十三人集』, 강세균 엮음, 부산: 대한군사원호문
화사, 1952.3, 134~148쪽.
- 『現存韓國文學人總覽』, 『文化世界』 1권 3호, 부산: 희망사, 1953.9, 203~
229쪽.
- 박정상, 『動亂期(1950.6.26.~1953.8.15) 부산경남 지방의 신문잡지 출판攷』,
『전망』 제2집, 부산: 시로, 1985, 266~284쪽.
- 박태일, 『한국 근대 지역문학의 발견과 과성 설창수』,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4, 223~258쪽.
- 송창우,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 경남대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12.
- 양왕용, 『한국 현대시와 지역문학』, 작가마을, 2006.
- 이광석, 『마산 시문학사 I』, 『마산문인대표작선집』 1, 마산문인협회, 2009,
444~465쪽.
-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동
남어문학회, 2007.11, 173~205쪽.
-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7
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57~291쪽.
- 한정호, 『지역문학 발굴자료: 피난지 마산의 동인지 『처녀지(處女地)』』, 『지
역문학연구』 제12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11, 195~248쪽.
- 한정호,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
학회, 2009.8, 159~196쪽.
- 황국명, 『부산 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
국문학회, 2004.8, 331~377쪽.
- 『2007 부산대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2007.

<Abstract>

Regional Literature and Literary Coterie Magazines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Lee Soon-wook

This paper aims at closely examining the overall state and characters of student coterie magazines published in Busan area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Reshuffle of the literary circles and changes in literary fields during the war period, literary conditions driving young writers to the literary field, found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formation of student literary coterie, their organization and ideological orientation, changing status of coterie members, literary exchanges and regional solidarity and the advance to the institutional literary circle have been explored.

First, the newly established refuge literature following the reshuffle of the literary world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extensiv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media, occasional experiences of publishing media by the Busan and Gyeongnam Literary Society, hosting of nationwide literary events such as Yeongnam Arts Festival Writing Contest provided substantial and physical foundation to usher in the era of student literary coterie magazines. In particular, various events arranged by the Federation of Cultural Organizations, including literary lecture and poetry recitation events served as important factors in reshap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landscape, and provided young writers aspiration in literature. The publication of new magazines motivated young writers to create literary works, providing a stepping

stone for the transition to the students' literary world. The Yeongnam Arts Festival Writing Contest where respected writers across the nation participated provided young and promising writers with an important opportunity to boost their literary enthusiasm.

Second, it is hard to regard student literary coteries as professional organizations strongly advocating specific literary ideologies. But, beginning with 『Seoji』(『瑞枝』), which was followed by 『Cheonyeoji』(『處女地』), 『Sinjakpum』(『新作品』) and 『Sijo』(『詩潮』), they were leading the coterie literature in Busan area in the 1950s. Against this backdrop, students' coteries continued to strengthen their solidarity with young writers in Busan and Gyeongnam area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regional literature for the post-war period.

Third, students' coteries in Busan area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continued to promote horizontal and vertical combinations as well as literary exchanges between areas (Busan and Jinju, Busan and Masan, Masan and Tongyeong) and between generations (older generation and literary follow-up generation). It seems that these efforts allowed them to grow into regional coteries with professional capabilities, making it easier for their members to enter the bigger institutional literary circle.

Regional literature in Busan during the war period was faced with a challenge to establish its own literary society as the refuge literature began to be dissolved. Persistent literary activities of student literary coteries played a key role in solidifying its identity. Though short-lived due to the temporary refuge literature and internal problems, student literary coteries were able to enhance their status in the major literary institution, serving as a key factor in forming and developing Busan's regional literature. Their literary activities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can be said to be the milestone demonstrat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ost-war literary generation in the history of Busan and Gyeongnam Literatur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institutional literature.

- Key Words: Korean War period, regional literature in Busan, media, student coterie, literary coterie magazine, student literary coterie magazine, 『Seoji』, 『Cheonyeoji』, 『Sinjakpum』, 『Sijo』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5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